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개원

- 홍보 부 -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가 통합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이 8월 1일 출범했다. 국립수의과학 연구검역원은 지금까지 국립동물검역소가 담당하던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수의과학연구소가 맡았던 국내가축 질병방역을 비롯해 연구업무

를 전담하게 된다.

수의과학연구소 자리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본원을 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원장 밑에 2개부(축산물 검사부, 질병 연구부), 13개과, 5개 지원, 8개 출장소를 각각 두며 전체 정원은 수의직 2백23명, 연구직 90명, 행정 및 기능직 1백24명 등 모두 4백37명이다.



◀이관용 신입원장(사진 중앙왼쪽)이 김성훈 농림부장관(사진 중앙오른쪽)과 함께 현판을 걸고 있다.



▲본회 최상백 회장과 소비자 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촬영이 있었다.



◀이관용 신임원장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인사

○국장급

▲원장 이관용 ▲축산물 검사부장 최상호 ▲질병연구부장 배상호

○과장급

▲질병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조준형 ▲서울 지원장 이희우 ▲부산지원장 김정훈 ▲관리과장 조춘상 ▲축산물 검사부 검사기획과장 조남인 ▲위생관리과장 이주호 ▲성분규격과장 이갑일 ▲미생물 과장 강기백 ▲독성화학과장 박종명 ▲동물약품과장 김재학 ▲질병연구부 방

역과장 윤용덕 ▲병리진단과장 강영배 ▲세균과장 김종업 ▲바이러스 과장 안수환 ▲조류질병과장 김기석 ▲인천지원장 김명우

○서기관

▲축산물 검사부 검사기획과 김의호 ▲질병연구부 방역과 강두황